

10년 후 한국 양돈 산업의 전망

지난 2월 27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사)양돈연구회 세미나에서 '10년 후 한국 양돈 산업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강화순 이사(에그리브랜드퓨리나(주))가 발표하였다. 본 내용은 각 분야별 양돈 산업 전망을 요약·발췌한 것이다.

정책분야

현재 우리나라 양돈 산업은 생산성 감소, 생산비 증가, 품종지하, 안정적인 공급 능력 취약 등 4개 분야 모두 중체적으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생산자가 이러한 위기감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생산과 유통의 거리감이 멀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생산자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노력과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그동안의 하드웨어적인 양적 성장 중심의 지원에서 과감히 질적 성장과 생산 기반 안정화 정책, 분뇨 자원화, 안전축산물 생산 등 양돈 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남기 위한 정책과 산업 내의 자구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10년, 20년 후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현재 상황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고객지향적인 고부가가치의 상품 생산과 공급이라는 대과제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개별 농장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소미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품질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산업 전체와 국가 주도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조기 기술과 사양 관리의 표준화, 성적과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발굴 및 육성, 분뇨 처리 기술과 자원화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다.

종돈분야

종돈은 능력면에서 일당 증체량과 동지방 두께, 사료 효율, 산자수 등이 지속적으로 개량되었다. 집정수

수에서도 농장 집정두수가 1995년 4.563두에서 2005년 4.768두로 10배 증가했고, 집정소집정두수도 종료두수 기준으로 1995년 4.645두에서 2005년 5.123두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돼지의 중하체중은 2005년에는 108kg까지 늘어났으나, 10년 후에는 115kg까지 증가하고 돈육 구입 방법도 정육집에서 대형 할인점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종돈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산자 핏질에 대해서는 아직 능력의 차이가 있고 산자수를 자체적으로 개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짧은 시간에 개량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돈의 수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돈 수입이 최근에 북미에서 유럽으로 전환되었으나, 앞으로 질병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경우에는 수입 국가가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핀란드로 전환될 수도 있다. 10년 후 종돈 업계에서 가장 염려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다. 지적 재산권이 세계적으로 보호될 경우에는 많은 추가 비용이 지불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종돈을 만들기 위한 종돈의 개량과 평가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유통분야

국내 돼지고기 유통 시장은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입량은 증가하고 자급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시 기준의 국내산 중심의 유통 구조에서 국내산과 수입육이 존재하는 새로운 시장 형태가 나타남으로써, 복잡한 현

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특히 삼겹살에 편중되었던 수입형태도 기나갈수록 등선호부위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지방 부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냉장 수입육 증가는 국내 돼지고기 유통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돼지고기 유통 관련 업체의 경우에도 도축장 및 육가공 업체의 구조 조정과 이력추적시스템에 의한 돈육 유통의 차별화, 루트 세일에 의한 부위별 판매와 수입 안정, 양돈계열화에 의한 안정적인 원료구매 등을 실시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시장구조조정원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유통시장의 거래방법에 있어서도 기존 돼지 및 돼지고기 거래기준가격인 지속가격이 도매 시장의 작업두수 감소로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선물 시장과 같은 새로운 제도와 형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부위별 거래가격이 지속가격에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부위별 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도 높은 실정이다. 국내 돼지고기 유통 시장은 국내 생산 여건 및 긴장 위주 소비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주요 양돈 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 통신판매의 다양화와 선진 유통기법을 가진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은 국내 돼지고기 유통 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유통업체 및 정육점 판매 비율이 감소한 반면, 대형 할인점과 대형 급식처 및 직매장 판매 비율은 증가하면서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제도 강화와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분야

양돈에서 질병에 의한 피해가 국내 양돈 총 생산액의 20%까지 이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며, 이는 최근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4P(PRRS(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PRDC(돼지 호흡기 증후군), PMWS(이유후 전신소모성 증후군),

PED(유행성 실사)에 의한 피해를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억 원이 돼지가 폐사하거나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해서 부담하는 비용일 것이다. 국내 양돈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에 따른 육류의 소비 증가와 같은 식습관 패턴의 변화로 인해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더불어 양돈업 자체적으로도 사육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일괄 사육에서 중돈, 자돈, 육성/비육돈 생산농가로 전문화되는 등 선진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자유화, 개방화에 따라 새로운 해외 질병이 유입되거나, 일부 농가의 열악한 사육 환경과 농장의 밀집 또는 농장 간 폐지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전염병 감염 기회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각종 전염병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지금의 농장별 폐사율은 그리 크게(5% 내외) 개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국내 평균 15%선에서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윽고 외국의 양돈 전문수의 사들이 향후에 제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PRRS, PMWS,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흉막 폐렴, 파보바이러스, 오제스키밍 등을 꼽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으며 이런 정도의 질병들이 지금이나 가까운 장래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에서 니파바이러스 유행 가능성 및 최근 문제되는 칼시바이러스 같은 외래성 신종 질병이 항시 도사리고 있으며 특히 유산산 질병의 일종인 EMCV는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식육 안전성 문제 및 항생제 내성 증가 방지를 위한 항생제 사용의 규제는 세균성 질병 증가와 증체 저하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MSY(본돈 1두당 연간 출하두수) 증가 개선의 방해, 생산비 증가 등 생산성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성장촉진복격의약품 사용은 시간응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